

##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2008년 러시아 군사개혁 방향

김영옥(공군사관학교 조교수)\*

### 논문요약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NATO가 지속적으로 동진 확장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유럽에 배치하려는 정책으로 전략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국지적 전쟁이 확산되었으며, 내전, 국제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군은 역내 위기에 군사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전쟁 양상이 출현하였고 러시아는 미래전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했다. 2008년 군사개혁과 함께 러시아는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 및 배치하였다. 또한 군의 지휘구조 개선, 대대전술단 편성, 국가무장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이고 기동성 높은 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러시아군은 정보우세를 달성하여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제어 : 전략적 안정성, 군사개혁, 대대전술단,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

---

\*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한 국가가 어떠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여야 하는가 문제는 대외 안보환경과 외부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에 대한 평가, 대내 인적, 물적 수단의 가용한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로 전환하였고, 전쟁, 국제테러, 난민, 국가붕괴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제정세는 점차 불안정해졌다. 러시아군은 1860년대 제국의 밀류틴 전쟁부장관, 1970년대 소련 오가르코프 총참모장과 같은 개혁가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며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는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위력 개선 정책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2000년대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체첸 전쟁과 러시아-조지아 전쟁을 경험했고 2008년 전면적인 군사개혁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2015년 시리아 군사개입, 2022년에 시작하여 2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6년 전의 러시아 군사개혁이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되돌아 보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러시아가 결정해야 하는 군사력 건설의 주요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008년 러시아 군사개혁에 관해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기는 러시아 군 개혁의 배경이 군의 뿌리깊은 부패와,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보여준 무능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군 내부의 저항과 방산기업의 노후화 등이 개혁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김경순은 러시아의 군 개혁을 옐친 시기부터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작고 기동성 높은 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분석하였다.<sup>2)</sup> 우평균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2008년 국방개혁의 성

1) 김정기, "러시아의 전면적 군개혁 : 현황과 전망." 『전략연구』 제53권, 2011, pp. 113~151.

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sup>3)</sup> 윤지원은 2008년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군현대화는 푸틴 4기 집권기에도 전략무기 구축을 강화하는 정책속에서 지속성을 띄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4)</sup>

러시아의 군사개혁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NATO 회원국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 Rand 연구소의 라딘(Radin)과 공동 집필자들은 장기적인 러시아군의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군이 2008년 군사개혁을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크림반도 합병, 서방과의 공격적인 군사정치적 대결을 불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sup>5)</sup>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군사개혁 이후로 러시아의 군에서는 더 이상 소련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sup>6)</sup> 스웨덴의 국방과학연구소(FOI)에서 수행된 보고서에서는 2008년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공격 태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 여러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군은 어떤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고, 2008년 군사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러시아-NATO간의 갈등, 당시 비효율적인 러시아군 전투력 실태, 미래전 양상의 출현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정리해 볼 것이다.

---

2) 김경순, “러시아 군개혁의 동향과 전망: 2008년 군개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pp. 147~177.  
3) 우평균,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와 시사점.”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2016, pp. 121~162.  
4) 윤지원,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6 № 3, 2018, pp. 83~104.  
5) Radin, Andrew et al, *The Future of the Russian Military. Russia's Ground Combat Capabi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Russia Competition*. RAND, 2019.  
6) *Russia's Military Modernisation: An Assessment*. IISS, 2020.  
7) Persson, Gudrun et al, *Russian Military Capability in a Ten-Year Perspective*. FOI, 2019.

III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러시아의 안보환경 인식에 따라 군사개혁과 군사력 건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IV장 결론에서는 2008년 러시아 군사개혁에 대해 잠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마무리한다.

## II. 2000년대 전후 러시아의 안보상황 인식

### 1. 전략적 안정성 저하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국제안보환경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군사 독트린’에는 핵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군사 영역에서의 신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어느 국가에게도 적대시 하지 않으며’ 비군사적 수단에 기초한 집단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시각은 1997년 ‘러시아 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서에 따르면 당면한 국제안보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국제정치 구조는 다극적, 협조적, 상호의존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 위협보다 대내적 위협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군사력의 절대적 역할 대신 비군사적인 요소들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sup>9)</sup>

한편, 2000년 전후로 러-NATO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러시아가 국제 안보환경에 대해 비교적 자유주의적 시각을

8)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звестия*, 1993. 11. 18., [https://yeltsin.ru/uploads/upload/2019/12/21/22124076\\_18.11.1993.pdf](https://yeltsin.ru/uploads/upload/2019/12/21/22124076_18.11.1993.pdf) (검색일: 2024.2.19.).

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онцеп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7. 12. 17., <http://kremlin.ru/acts/bank/11782> (검색일: 2023.9.2.).

견지했던 반면 1999년 이후부터는 서방의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우려와 의심을 넘어 강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NATO는 1999년 제6차 전략개념에서 안보의 범위를 군사적 방위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요소를 포함시켰고, 이어서 구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NATO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는 NATO를 더 이상 순수한 군사조직이 아닌 기존 국제질서를 변화를 가하는 정치적 기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또한 NATO의 코소보 사태 군사개입(1999년), 9.11 테러(2001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및 미국-이라크 전쟁(2003년) 등 국제 테러와 지역전쟁이 연쇄적으로 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소련 지역까지 헤게모니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며, 서방은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러시아의 우려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2000년 ‘국가안보개념’ 문서에서는 서방이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신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다극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대립한다고 평가하면서, 국제 갈등과 분쟁을 일방적이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1)</sup>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정책은 NATO의 동진 정책과 함께 전략적 억제력 약화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미국 부시 정부는 핵보유국 수의 증가와 장거리미사일 기술 확산으로 인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2년 동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였고, 탄도미사일을 지구 대기권 밖 중간 항로에서 요격할 수 있는 MD 미사일 기지를 미국 국내에 배치하였다. 2004년부터는 폴란드에 지상배

10) Антюхова, Е. 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тратегии НАТО в постбиполярный период.”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Орл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6, vol. 69, 2015, p. 22.

11) “О Концеп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0. 1. 10., <http://kremlin.ru/acts/bank/14927> (검색일:2023.9.2.).

치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 10기를 배치하고 체코에 장거리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러시아는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고 안보불안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만약, 러시아 인근지역에 위치한 옛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NATO에 편입되고, 이들 국가에 미사일방어 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의 핵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GBI의 사거리와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수도 모스크바에 가까이 도달할수록 NATO의 핵 방위능력은 증가하고 러시아의 선제 핵공격 능력은 저하되기 때문이다.

NATO의 군사력 확장은 양적 및 질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외부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군사 독트린’에서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핵,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충분한 수준의 핵억지력을 포함한 군사적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12)</sup>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이 제기하는 안보 불안의 목소리를 서방이 반대도 아닌 아예 무시하였으며, 서방은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은 나토 확장으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 동맹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깬 나토에 대한 불신,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 창출 노력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러시아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푸틴의 강한 불만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2008년 4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희망 의사를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12)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2. 5., <http://kremlin.ru/supplement/461>(검색일:2023.9.2.).

## 2. 러시아 군의 낮은 전투 효율성

국제질서는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위협 인식을 반영하여 '군사독트린'에는 국지적 무력갈등의 확대 가능성, 지역수준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 정보전, 조직범죄, 불법무기 거래와 마약 거래 등 초국가적 성격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여전히 소련의 비효율적 전투체계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1, 2차 러시아-체첸 전쟁과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는 러시아 군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낱알이 노출되었다. 미국과 NATO 군이 빠르고 정교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군은 여전히 물량에 의존하는 재래식 아날로그 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체 병력 수는 지나치게 많았으나 임전태세를 갖춘 병력은 적었고, 전투태세로 전환하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렸다. 당시 러시아 군 검열 결과 상시 전비태세를 갖춘 부대는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특히 공군은 7%, 방공부대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대가 전무했으며, 이들 부대조차 전투에 돌입하는데 24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난 바 있다.<sup>13)</sup> 2006년 푸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체첸 전쟁 당시 군의 미흡한 전비태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테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65,000명의 병력이 필요했으나 전 지상군에서 전투준비를 갖춘 병력은 5만5천명밖에 없었고, 이 또한 전국에 분산되어 있었다. 군은 140만 명인데 싸울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sup>14)</sup> 소련군은 전쟁 발발의 징후가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규모 동원군과 함께 전투에 돌입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위기관리 단계에

13) Шлыков, В.В., "Тайны блицкрига Сердюкова." *Россия в г 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6, 2009. <https://www.globalaffairs.ru/articles/tajny-bliczkriga-serdyukova/> (검색일:2023.10.20.).

14)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6. 5. 10.,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7> (검색일:2023.12.11.).

서 전시단계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군의 모습은 현대전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작전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전투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이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전장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러시아 군 지휘부는 이러한 지휘구조가 중간 지휘관층의 장교 수가 비대하게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러시아 군의 중·대령은 전체 장교의 50%나 차지하고 있었고, 최고지휘관의 명령이 제대 전체에 하달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층이 두터워 전투부대의 명령 이행 속도 또한 느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다수의 장교에게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단일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조직에서 관리자 및 중간 계층의 지휘관 수를 줄이고 명령 계통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 군의 대대적인 개혁 요구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던 전투 지휘통제체계가 러시아 군에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체첸 전쟁기간에 러시아 군은 위성항법장치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체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된 적이 없었고, 러시아-조지아 전쟁시에는 체계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성능이 떨어지고, 단말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거나 장병들은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운용 능력이 전혀 없었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서는 공지합동작전 및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은 거의 목격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감시정찰-표적할당-무기배정-타격-평가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합동작전 수행 체계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 군의 손실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자세히 발표는 없었지만, 러시아 군사 및 방산 연구기관인 '전략 및 기술분석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사망 67명(19명은 조작 실수, 아군 오인 폭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283명(28명은 골절 및 타박상 등 비전투 손실), 군용기 6대(Su-25 3대, Su-24 2대, Tu-22M3 1대), 전차 3대(T-72BM, T-72B, T-62 각 1대), 장갑차 및 보병수송차량 약 20대

(BMP-1 9대, BMP-2 3대, BTR-80 2대, BMD-2 1대, BRDM 3대, MT-LB 1대)가 파괴되었고, 종전 직후에도 2대의 헬기(Mi-8MTKO와 Mi-24)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로 추락하였다.<sup>15)</sup>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5일간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가 조지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러시아군은 첨단기술 운용과 비접촉 전투와 같은 고도화된 방식이 아닌 소련의 전쟁 수행 개념에 따라 대량의 무기와 병력을 운용하였고 군사작전중 많은 취약점이 드러났다.

### 3. 새로운 전쟁 양상의 출현

탈냉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 군사분쟁과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미국과 NATO가 주도한 전쟁은 양극체제하에서 대규모 장기전을 대비하던 러시아군 지도부의 시각에서는 전혀 새로운 전쟁 양상이었다. 2004년 당시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최근의 무력충돌이 보여주는 특징에 관해 분석하고, 현대전 수행을 위해 러시아군이 어떠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군사 기관지에 기고하였다. 동 기고문에서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NATO의 유고슬라비아 공습(1999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2년), 미국-이라크 전쟁(2003년)과 같이 최근의 전쟁은 비대칭적 성격을 가지며, 전쟁의 승패는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고, 공세 주도권을 잡는 군이 유리하며, 군사 인프라 뿐 아니라 경제 및 국가 시스템도 주요 표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지휘통제, 특히 지상군과 공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자전 능력 및 대공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동

15) Барабанов, М. С. et al., “Танки август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осква: Центр анализа стратегий и технологий, 2009, p. 114.

16) Иванов, С. П., “Актуальные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기고문은 소련 붕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국방개혁의 당면 과제조차 완수하지 못하고 구식 소련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최초로 미래지향적 고도화, 첨단화 군사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특히 미군이 수행한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은 당시 러시아 군 지도부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으며, 러시아 총참모부는 이 개념을 러시아 군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은 분산되어 있는 군사력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집중되어있는 것처럼 운용하고, 공간적, 시간적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것이다. 승리의 핵심은 정보우위를 달성하여 전장에서 적보다 먼저, 정확하게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응 조치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다. 소련군이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input)’하는 전쟁 수행 개념을 유지했다면, ‘네트워크 중심전’은 빠른 의사결정 사이클, 정보우세 등 ‘산출(output)’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요소였고 러시아 군에게는 사고혁신 및 과감한 체질개선 등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sup>17)</sup>

#### 4. 러시아의 군사전략

러시아는 앞에서 살펴본 전략적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공무기의 성능을 높이고,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sup>18)</sup>

---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расная Звезда*, №. 190, 2003년 10월 11일. 이바노프 국방부장관이 미래전 양상을 분석하고 러시아 군의 개혁방향과 발전과제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고문은 러시아의 ‘국방백서’라고 불리기도 했다.

17) Ковалев, В. И., “Концепция сетецентрической войны для армии России: множитель силы или ментальная ловуш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Т. 15, № 5, 2013, p. 35.

둘째, 인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러시아 대외정책의 지역적 우선순위에 해당되며, 모든 형태의 불안정, 테러 또는 분쟁, 재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안정 요소가 러시아 내부까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지역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up>19)</sup>

셋째, 미래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고, 갈등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전쟁의 목적도 군사력 파괴가 아닌 경제력 파괴로 바뀌고 있다. 신세대 전쟁에서는 정보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 상황 인식, 전술 제대와 전략 제대의 실시간 정보공유, 고도화된 네트워크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하는 전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랜 외세 침략의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 Ⅲ. 러시아 군사개혁의 주요 과제

#### 1. 전략적 억제력 강화

러시아는 냉전 시기나 탈냉전 시기에도 핵 억지력이 약해지는 것을

---

18) Bruusgaard, Kristin Ven,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pp. 12~15.

19) Monaghan, Andrew, *Power in Modern Russi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7, pp. 68~70.

20) Гареев, М. А., "Уроки и выводы из опыт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енная мысль*, No. 5, 2010. p. 27.

용인한 적이 없다. 2006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과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은 핵정책이고, 그 중심에는 전략핵미사일군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군사개혁으로 대대적 군 규모를 축소할 때에도 전략핵미사일군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2009년 마카로프 총참모장이 “핵 위협으로만 억제할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국가의 완전 소멸로 가지 않은 것은 핵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핵억제력의 핵심은 핵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 방공체계가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MD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 다탄두전략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연구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여러 개의 핵탄두가 각각의 다른 표적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핵미사일의 수를 늘리지 않고도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다. 2006년 러시아는 다탄두 이동식 핵미사일 토폴(Topol) 핵미사일을 배치하였고, 핵공격이 가능한 델타급 구축함과 보레이급 잠수함을 전력화하였다. 동시에 드미트리 돈스코이 타이푼급 잠수함에서 불라바(Bulava)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중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위해 Tu-95, Tu-160 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련 붕괴 후 중단하였던 장거리 초계 비행을 재개하였다.

러시아는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도 강화하였는데, 6천km 거리의 탐지 거리를 보유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보로네시(Voronezh), 돈(Don) 기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A-50 조기경보레이더와 조기경보 위성과 연동하여 탐지 능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탄도탄 요격 방공무기 S-300를 칼리닌그라드에 추가로 배치하고 성능을 개발하였으며, S-400, S-500과 같이 요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방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 2. 전투 효율성이 높은 군으로의 변환

### (1) 병력 및 부대 감축

탈냉전 이후 러시아-NATO의 대화와 협력관계는 지속되지 못하고 NATO의 지속적인 동진, 러-미간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장치의 훼손, 구소련 연방 지역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외 안보환경은 점차 악화되었고, 러시아 지도부는 전략핵 억지력을 견고히 유지하고, 확산되어가는 국지전 및 국제테러리즘 등 현대전 양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 군에 요구하게 되었다. 2006년 푸틴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러시아 군은 반드시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수의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sup>21)</sup>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군에 요구한 이러한 능력은 향후 국방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소련 붕괴 후 사회, 인구,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면서 군의 내부적 저항으로 지연되어 왔던 병력 감축 및 지휘구조 개편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 규모를 134만 8천명에서 1백만명으로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군 장교의 수를 35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전체 병력의 26%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군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과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sup>22)</sup>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까지의 국방장관들

21) Путин, В. В.,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council.gov.ru/events/news/23947/> (검색일 2023.11.1.).

22)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군의 병력은 1991년 기준 약 3백 80만 수준이었다. 1992년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군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군 병력 감축을 지시하였으나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고, 2백50만에서 2백80만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994년에 210만, 1997년경에는 170만까지 줄어들었다. 1997년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군 병

이 항상 장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르듀코프 장관은 장교의 숫자를 대대적으로 감원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장교단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은 중간 지휘관이 너무 많아 명령체계의 전달이 신속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지휘관은 많으나 이를 이행하는 병력은 적은 관료주의 조직이 전투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 군의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이 10만명이 안 되었고 그 중에서 약 50%가 지휘하는 계선에 있었다.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의 장군 수를 1,107명에서 886명으로, 대령은 25,665명에서 9,114명으로, 중령 88,678명에서 15,000명으로, 소령을 99,550명에서 25,000으로, 대위를 90,000명에서 40,000만명으로 줄이고 중·소위를 50,000에서 60,000만으로 늘려 장교 인력 모형을 달걀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군인들이 야전 전투부대 근무 보다 수도권에 있는 정책 및 지휘기구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여 국방부 및 총참모부 등 지휘기구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고 판단하고 모스크바 지역 국방부 및 국직부대 근무자의 수를 21,813명에서 8,500으로 2.5배 이상 삭감하였다.

전체 병력의 축소 작업과 함께 부대의 수도 줄일 수 밖에 없었는데, 국방부는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부대는 보존하되, 지원 및 행정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는 폐지하고, 기타 부대는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부대 수를 줄임과 동시에 부대장 및 지휘관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상군의 기존 1,980개 부대는 172개로 11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해군의 경우 240개의 부대를 통폐합 하여 123개로 재편성하였고, 북방함대, 발트함대를 서부군관구에, 흑해함대와 카스피해소함대를 남부군관구에, 태평양함대를 동부군관구에 편성시켰다. 공군은 기존의 군단 및 사단급 부대를 폐지하고 독립 사단과 독립 연대는 비행부대(Air Base) 이하로 편성<sup>23)</sup> 되었으며, 기존 340개의 부대가 180개

력 규모를 1백20만명으로 정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2005년 푸틴 대통령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군 병력을 1백만에서 134만8천명으로 약 13% 증원하였다.  
23) 비행부대는 정비, 경비 전력이 통합되는 형식으로 개편되었고, 1개의 비행부대장이 6개 내지 7

로 줄어들었다.

(2) 군관구 개편 및 합동전략사령부 창설

러시아 국방부는 6개의 군관구를 4개로 통합하여 각 군관구별로 존재했던 행정조직을 하나로 줄이는 방식으로 부대와 병력의 수를 줄이고, 각 군관구에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군관구사령관에게 보다 강화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였다. 모스크바군관구와 레닌그라드군관구 및 발트함대를 합쳐서 서부군관구로, 시베리아군관구의 일부(서부지역 부대), 불가-우랄 군관구의 일부 및 북방함대를 합쳐서 중부 군관구로, 불가-우랄 군관구의 나머지 일부와 북카프카즈 군관구, 흑해함대, 카스피해 소함대를 합쳐서 남부군관구로, 극동군관구와 태평양함대 및 시베리아군관구의 일부(자바이칼 지역 부대) 연합부대를 합쳐서 동부군관구로 재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1개의 군관구당 행정부서에 근무하던 1,000여명의 장교를 포함하여 5,000여명의 현역 보직을 삭감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군관구 개편으로 관할 지역이 더욱 광범위해진 지역에서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각 군관구에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의 주 목적은 군관구에 주둔하고 있는 지·해·공군의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합동전략사령부 창설 이전 공병부대가 군관구 지역내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군관구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작전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모스크바의 공병군사령관에 협조를 구하고 제한적으로 전투기동을 명령하는 복잡하고 비효율적 지휘체계가 있었으나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군관구사령관에게 통합적 지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명령 전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sup>24)</sup>

---

개의 최대 100여km 이격된 예하부대를 관할하게 되었고, 줄어든 병력과 지휘부로 150~200대의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를 관리하게 되어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었다.

24) 그러나 전략적 수준에서의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핵로켓군의 미사일 부대, 우주군의 ICBM 조기 탐지 레이더부대 및 방공부대, 공수부대는 군관구사령관이 아닌 총참모부 지휘통제

## (3) 군의 증응 능력 및 기동성 향상

군관구 개편으로 인해 군관구의 작전관할 범위는 넓어진 반면 부대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러시아 국방부는 부대의 신속한 전개 및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의 기동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소련 군이 1만 명 규모의 사단을 작전 기본 단위부대로 운용하였던 것을 약 5천명 규모의 여단을 기본 단위부대로 조정하고, 작전 지휘체계를 군관구-군-사단-대대의 4단계에서 군관구-작전사령부-여단의 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09년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지난 1년 동안 23개 사단을 해체하고 85개의 지상군 여단이 편성되었으며 작전 전략 및 작전 사령부가 설립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목표는 모든 대대 또는 여단이 경보 발령 후 한 시간 이내에 예비군의 추가 동원 없이, 창고에서 탄약, 연료, 식량 등의 배달을 기다리지 않고도 전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투 준비 시스템 구축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단의 충원율은 70~50%에 불과하여 작전인원 및 무기·장비의 부족으로 여단을 완전 편성하기 어려웠고, 노후화 무기체계를 인해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부족한 탄약 문제가 남아있었고 대안 방안으로 대대전술단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의 대대전술단은 작전상의 유연성을 갖춘 임시 편성으로, 평시 주둔지에 위치한 여단이 분쟁지역으로 기동명령을 받으면 규모는 작지만 자체적으로 전투 완전성을 구비한 '대대전술단'으로 부대를 재편성해 기동하고 여단의 잔여 전투력은 기존 주둔지에서 남아서 필요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대전술단은 약 800명 규모의 병력으로, 전차중대, 정찰중대, 포병중대, 방공포중대, 공병-군수중대, 통신중대로 구성되며(현대 대대전술단은 전자전 부대와 무인기 부대를 포함함), 전차 24대, 장갑차 28대, 자주포 중대형 12대, 다연장포 4대, 방공포(고고도 및 저고도 휴대용) 무

---

를 받도록 유지하였다.

기로 구성된다.<sup>25)</sup> 대대전술단의 운용 효과는 제병협동 부대로 편성하여 보병·기갑·포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병과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돼 전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대전술단은 장기전 수행을 위한 차체 보급 및 정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규모 전면전 전쟁상황에서 보다 국지전, 비교적 단기전에 적합한 부대 구성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역내 군사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현대 국지전에서는 부대의 전술적 자율성 증가, 다양한 유형의 전투에서 해결해야 할 전투 임무의 성격 확대, 작전 기동 중 결정적인 방향에 대한 빠른 집중이 요구되었으며 대대전술단은 최적의 전술 단위부대라고 판단하였다.<sup>27)</sup>

#### (4) 무기체계 현대화

두 번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러시아 군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무기체계의 80%가 소련 시기에 생산된 것이고 노후화로 인해 전시에 실질적 전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군은 오랜 기간동안 새로운 무기체계가

---

25) Степанов, Е. В. et al., “Особенности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именения батальон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Материалы II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я в война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XVI - начала XXI века, *Вестник 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 2 vol. 6, 2019, p. 73.

26) 대대전술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에 168개의 대대전술단을 완비하였으며, 이 부대는 1시간 내 작전전개가 가능하도록 전비태세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Шойгу заявил, что в армии Росси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168 батальонно-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Тасс*, 2021년 8월 10일, [https://tass.ru/armiya-i-opk/12099255?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https://tass.ru/armiya-i-opk/12099255?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 (검색일:2023.11.15.).

27) Степанов, Е. В. and Островский, С. Н.,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батальон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и взглядов на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х войсках.” *Научный резерв*, №. 2, vol. 6, 2019, p. 73.

도입하지 못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소련 시기에 생산된 2만여대의 전차 중 9천여대가 운용 불가 및 도태될 상태에 있었으나 러시아 지상군은 2000~2006년 기간 중 단 53대의 신형 전차를 인수하였다.<sup>28)</sup>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방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상비 지출로 인해 전력 투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8년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대대적으로 감축하여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신형 무기체계 보유 비율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군을 현대 무기체계로 재무장 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국가무장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 ‘국가무장프로그램’은 정부 방산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에서 수립하는 국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무기조달, 군사 연구개발, 무기 및 장비의 수리정비, 현대화(업그레이드) 및 재정 투자에 관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푸틴 집권 2기, 2006년에 확정된 ‘2007-2015년도 국가무장프로그램’에 따르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GDP의 2.6~2.8%를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에 배정하고 총 4조9천394억 루블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중 83%에 해당하는 4조980억 루블을 국방분야에 할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sup>29)</sup>, 이 예산 중 63%를 신형 무기 도입에 배정하여 2020년까지 러시아 군의 현대 무기체계 비율을 당시 20%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2015년도 국가무장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현대식 무기체계 비율을 2010년까지 35%, 2015년까지 45%,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연간 5.5% 비율로 노후 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율은 연간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러

28) Мясников, В. С., “Такая армия государству не по кошельку.”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6년 1월 13일, [https://nvo.ng.ru/forces/2006-01-13/1\\_ekonomika.html](https://nvo.ng.ru/forces/2006-01-13/1_ekonomika.html)(검색일:2023.11.3.).

29) Смитюк, 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вооружения России.” <https://tass.ru/info/4987920>(검색일:2024.2.19.). 국가무장프로그램 예산은 국방부 뿐 아니라 연방보안국, 경찰, 내무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을 포함한다.

시아-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군의 취약성 보강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2008년 푸틴 총리는 현대화 계획을 가속화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국방 예산의 약 70%를 무기 조달, 수리·정비, 연구개발에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국가조달명령’ 이행률이 2009년에는 50%밖에 이행되지 않은 반면, 2010년에는 70%, 2011년에는 96.3%로 급격히 상승하였다.<sup>31)</sup>

통상 5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국가무장프로그램을 메드베데프 정부는 3년만인 2010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1-2020 국가무장프로그램’에서는 매년 GDP의 2.8% 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하면서 총 20조7천억 루블을 배정하고 이중 19조4천억루블을 국방부에 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제시한 러시아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는 첫째, 전략적 핵 억지력 유지 및 현대화, 둘째, 정밀유도무기 개발, 셋째, 네트워크중심전 수행을 위한 ‘통합네트워크지휘통제체계’ 구축, 넷째, 제공권 장악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므로 항공군사기술 우선 개발, 다섯째, 무인기 분야에서 서방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sup>32)</sup>

동 프로그램에는 지상군에 총 예산의 15%를 할당하여 전차 23,000대, 포병 시스템 2,000대, 이스칸데르-M 여단 10개 창설 및 S-300V4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고, 해군에는 26%를 배정하여 불라바 탑재 보레이급 핵잠수함(프로젝트 955) 8척, 야센급 핵잠수함(프로젝트 885) 8척, 잠수함 50척, 구축함 15척(프로젝트 22350), 초계함 35척(프로젝트

30) Растопшин, М., “Провальный курс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ветского оружия.” *Независимое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2. 9., [https://vpk.name/news/3090\\_strategicheskaya\\_poterya\\_tempa.html](https://vpk.name/news/3090_strategicheskaya_poterya_tempa.html)(검색일:2023.11.4.).

31) Рогозин, Д.О., “коррупция в оборонке — потворство врагам страны. Эксклюзив.” *НТ В*, 2015년 12월 4일, <https://www.ntv.ru/novosti/1579816/?fb#ixzz3tL02pu4s>(검색일:2023.11.2.).

32) “Создание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требует адекватного снаб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новым вооружением.”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10년 9월 22일, <https://topwar.ru/1506-sozдание-obedinennyx-strategicheskix-komandovaniy-trebuuet-adekvatnogo-obespecheniya-rossijskoj-armii-novym-vooruzheniem.html>(검색일:2023.11.2.).

22380), 칼리브르(함대함, 함대지) 탑재 5세대 순양함 건조 및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개발하고, 공군에 예산의 21%를 반영하여 Su-35, Su-34 전투기 등 고정익기 600대, 회전익기 1,100대 도입, S-400, S-500, S-350 방공시스템 100개 사단 배치, 판치르-S 방공시스템 개발하고, 전략 미사일군에 10%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르스, 사르마트 대륙 간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러시아가 군의 재무장 프로그램을 조속히 완수하려는 의지가 특별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를 자국에서 개발하고 군이 최우선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수출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 군의 무기체계가 서방과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무기체계를 자국의 방산 능력으로 적기에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과감히 해외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로부터 다목적 강습상륙함 ‘미스트랄’ 2척 도입(2015년 프랑스가 크림반도 사태 관련 수출계약을 파기하여 도입 무산됨), 독일 라인메탈 기업과 여단급 모의전투훈련센터 구축, 이스라엘로부터 정찰무인기 공동생산, 이탈리아로부터 Iveco Lynx 경장갑차 415대 러시아 국내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경 장치 등 러시아 방위산업이 조속한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과감히 해외 조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자국의 방산기업체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방산담당 포포프킨 국방차관은 “무인기 개발을 위해 50억 루블을 방산기업에 투자하였으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 군이 질 낮은 무기를 운용할 수 없다”며 국내 방산기업의 생산 품질에 불만을 표명하고 해외조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3. 미래전 대비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 구축

2000년대 전후 NATO가 주도한 일련의 전쟁에서 받은 인상과 러시아-체첸 및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군의 모습에서 얻은 충격이 극렬히 대비되면서 러시아 지도부는 미군의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휘통제 원칙을 첫째, 통일성, 둘째, 모든 수준에서의 중앙집중적 관리, 셋째,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효율성, 넷째, 결심 및 수행 결과를 지휘관에게 책임 부여, 다섯째, 지휘관 및 지휘부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조직성 및 창의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1개의 여단이 비자동화 3개의 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국방 개혁의 과정에서 작전 부대 단위가 여단으로 조정되고 부대의 기동성이 높아질 경우 부대 간 거리는 보다 멀어지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지휘통제 원칙을 유지하고 통일된 정보공간을 생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네트워크 중심전'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전장 상황에서 군종과 병종의 모든 부대를 하나의 군사 조직처럼 행동하게 하고, 최신 통신, 자동제어, 정보보안 장비를 구비하여 통제, 기동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единая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тактического звена)'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은 국가방산위원회에서 러시아 군의 모든 군종 및 병종 부대가 통일된 지휘통제하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후 2004년 방산기업 소즈베즈지예(Созвездие)가 설립되고 러시아 군을 위한 체계 개발이 시작되었다.<sup>33)</sup> 그러나 군 장교단 및 지휘부대 축소 과

33) 자동화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소련 시기에 개발되어 전략적 지휘참모 훈련 '자빠드(Запад)-81'에서 지휘통제 자동화시스템을 운용한 훈련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군·방공군, 공수군, 미사일 통제,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였고, 군종과 병종의 각 부대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의 본

정에서 국방부 주무 부서의 인원이 자주 교체 또는 삭감되고, 러시아 군을 위한 운용개념 정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체계 개발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또한 지·해·공군이 각자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표준화 하는 작업이 복잡한 법률행정, 예산부족, 방산기업 및 연구기관의 이권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체계의 시범 운용 테스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개발 업체는 많은 부분에서 보완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sup>34)</sup>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략작전통제센터를 방문하여 러시아 군에서 여전히 85% 비율로 운용되고 있는 노후된 아날로그 장비를 모두 디지털로 교체하고 2012년까지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sup>35)</sup> 2010년 푸틴 총리는 보로네찌市 소재 방산기업을 방문하여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을 운용하면 전장에서 항공기, 헬리콥터, 전함 및 병사를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현재 운용하는 제어수단에 비해 전술부대의 전투능력이 2~3배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발 가속화를 촉구하였다. 2011년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어 전력화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지난 3년동안 대규모 전략기동 훈련을 주로 진행했다면, 향후에는 전술적 수준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첨단 지휘통제체계의 능력을 검증해 볼 것”이라고 발표한다.

러시아 군이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달성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방에 가장 크게 뒤쳐져 있던 전술적 수준에서의 정보, 지휘통제 및 통신

---

격적인 시작은 200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군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에 관한 간략한 역사는 Соколов, А.В., “От "Ясеня" до "Акации" и "Созвездия". Создание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систем управления в войсках и оружии.”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 2, 2021, pp. 4~10. 참고

34) “Внедрение ЕСУ ТЗ в артиллери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21.2. 26., <https://topwar.ru/180323-vnedrenie-esu-tz-v-artillerii-suhoputnyh-vojsk.html> (검색일:2023.10.25.).

35)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 связ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2010.5.21.,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deliberations/7813/print> (검색일:2023.10.25.).

(C4ISR)의 급진적인 현대화를 의미한다. 군사개혁을 통한 과감한 병력 감축으로 인해 러시아 군은 역사상 최초로 적에 대한 보병과 기갑의 양적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 정밀유도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비접촉 전쟁’ 수행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현대전에서 급증하는 정보의 양을 보다 빠른 주기로 순환 처리하여 정보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은 2018년이 되어서야 개발이 완료되었고, 국방부는 2027년까지 전군에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러시아 군에 도입되는 ‘전술네트워크 통합지휘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개별 병사부터 탱크 및 항공기까지 군사 작전과 관련된 모든 전투 유닛을 전술적 수준에서 통합하고 전략 명령 링크와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체계이다. 전장정보는 정찰전력, 드론, 포병, 조종사의 네트워크에 입력되고 야전사령부 및 총참모부 지휘부(국가방위통제센터) 디스플레이에 종합적인 전장상황이 표시된다.

#### IV. 결론: 군사개혁의 잠정적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8년 러시아가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의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인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NATO는 지속적으로 동진하면서, 옛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새로 집권한 친미 성향의 정부 또한 NATO 가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자신의 MD 기지를 유럽에 배치하려고 하였고, 러시아는 NATO의 확장과 함께 미국의 MD 체계가 러시아에 가까이 배치된다면 러시아의 핵공격 능력이 약해지고 전략적 억제력이 훼손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기여했던 양극체제가 종식되고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쟁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국제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했으나, 러시아-

체첸 전쟁과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군은 비효율적인 소련 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셋째, 과학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전쟁양상이 출현하였으며 러시아군은 네트워크전,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미래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안보환경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수립한 군사전략은 첫째,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군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빠르고, 집약적이고, 기동성 높은 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정보우위 달성을 통해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2008년 군사개혁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재도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도 러시아는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M, 야르스(Yars), 루베즈(Rubezh), 사르마트(Sarmat), 불라바(Bulava)를 개발하였고, 미국의 MD를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Avangard)와 킨잘(Kinzhal)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닉(Burevestnik)이 개발중인데, 핵추진력으로 사거리가 무한대이며 공중에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다가 언제 공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MD를 무력화 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푸틴 대통령은 전략미사일군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억제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의 역내 군사력 투사 능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군은 국경지역에 168개의 전술대대단을 배치하였고, 개전 후 단 몇 일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13km 떨어져 있는 안토노프 공항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군수보급에 문제가 생기고 작전지속이 어려워지면서 개전 한달 만에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를 대전차미사일, 드론, 지뢰를 공격하였으며, IISS 군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약 8,800대의 러시아군 전투와 장갑차가 파괴되었다.<sup>36)</sup>

2008년 군사개혁에서는 병력수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사단을 여단으로 재편성하여 부대의 경량화, 기동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군은 다시 규모를 키우고 있다. 먼저 2023년 말 푸틴 대통령은 병력을 132만명까지 증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고, 2026년까지 군 병력을 150만까지 늘리고 징병 대상 연령을 현재 27세에서 3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부군관구를 모스크바군관구와 레닌그라드군관구로 분리하고, 서부군관구에 2개의 기계화보병사단, 3개의 강습사단, 7개의 기계화여단을 사단급으로 증창설하고, 핀란드에 인접한 카렐리야 지역에 군단을 창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2023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였고, 스웨덴도 곧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또한 NATO 가입을 천명한 상태로 러시아는 NATO 회원국 또는 잠재 회원국과 더 넓은 지역에서 국경을 접하게 된 것이다. 향후 러시아군이 보다 큰 규모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즉, 군구조 개편, 군사훈련 시행, 군사교리 개발 등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2014년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여 크림반도를 병합하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유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경험한 우크라이나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NATO 및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sup>37)</sup>

새로운 안보환경은 러시아 군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36) Michel, Yohann, "Equipment losses in Russia's war on Ukraine mount." *IJSS*, 2024. 2. 12., <https://www.ijss.org/online-analysis/military-balance/2024/02/equipment-losses-in-russias-war-on-ukraine-mount/> (검색일: 2024.2.15.).

37) 우평균,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군사』 제11권 11호, 2002, p. 15.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비대칭 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는 서쪽 뿐 아니라 북쪽 방면에서의 위협도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군은 국지전 뿐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지역전쟁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나, 무기체계 첨단화 과제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방산기업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래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쟁개념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등 신무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경순, “러시아 군개혁의 동향과 전망: 2008년 군개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7권 제1호, 2012.
- 김정기, “러시아의 전면적 군개혁 : 현황과 전망.” 『전략연구』 제53권, 2011.
- 우평균, “러시아의 국방개혁 : 성과와 시사점.”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2016.
- \_\_\_\_\_,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군사』 제11권 11호, 2022.
- 윤지원,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6, No. 3, 2018.
- 이석호, “소련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와 결정요인.” 『지역연구』 제2권 1호, 1993.
- Bruusgaard, Kristin Ven,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 IISS, *Russia’s Military Modernisation: An Assessment*, IISS, 2020.
- Monaghan, Andrew, *Power in Modern Russi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7.
- Persson, Gudrun et al., *Russian Military Capability in a Ten-Year Perspective*, FOI, 2019.
- Radin, Andrew et al., *The Future of the Russian Military. Russia’s Ground Combat Capabi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Russia Competition*, RAND, 2019.
- Антюхова, Е. 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тратегии НАТО в постбиполярный период”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Орл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No. 6 vol. 69, 2015.
- Барабанов, М. С. et al., “Танки август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осква: Центр анализа стратегий и технологий, 2009.
- Гареев, М. А., “Уроки и выводы из опыт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енная мысль*, No. 5, 2010.
- Иванов, С.П., “Актуальные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расная Звезда*, No. 190, 2003년 10월 11일.
- Ковалев, В. И., “Концепция сетецентрической войны для армии России: множитель силы или ментальная ловуш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T. 15, No 5, 2013.

- Степанов, Е.В. et al., “Особенности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именения батальон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Материалы II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я в война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XVI – начала XXI века*, Вестник 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 2, vol. 6, 2019.
- Степанов, Е. В. and Островский, С. Н.,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батальон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и взглядов на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х войнах.” *Научный резерв*, №. 2, vol. 6, 2019.
- Хлопова, И.Е., “Военная реформа 1924–1925гг. в СССР: причины, условия, реализация на примере курской губернии.” Дисс. кан. наук, автореферат, Курск, 2009.
- Шлыков, В.В., “Тайны блицкрига Сердюкова.”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6, 2009. <https://www.globalaffairs.ru/articles/tajny-bliczkriga-serdyukova/> (검색일:2023.10.20.).
- Michel, Yohann, “Equipment losses in Russia’s war on Ukraine mount.” *IJSS*, 2024.2.12., <https://www.ijss.org/online-analysis/military-balance/2024/02/equipment-losses-in-russias-war-on-ukraine-mount/>(검색일: 2024.2.15.).
- Мясников, В.С., “Такая армия государству не по корману.”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6년 1월 13일, [https://nvo.ng.ru/forces/2006-01-13/1\\_ekonomika.html](https://nvo.ng.ru/forces/2006-01-13/1_ekonomika.html)(검색일:2023.11.3.).
- Путин, В.В.,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council.gov.ru/events/news/23947/> (검색일 2023.11.1.).
- Растопшин, М., “Провальный курс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ветского оружия.” *Независимое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2. 9., [https://vpk.name/news/3090\\_strategicheskaya\\_poterya\\_tempa.html](https://vpk.name/news/3090_strategicheskaya_poterya_tempa.html)(검색일:2023.11.4.).
- Рогозин, Д.О., “коррупция в оборонке — потворство врагам страны. Эксклюзив.” *НТВ*, 2015. 12. 4., <https://www.ntv.ru/novosti/1579816/?fb#ixzz3tL02pu4s>(검색일:2023.11.2.).
- Смитюк, 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вооружения России.” <https://tass.ru/info/4987920> (검색일:2024.2.19.).
- “Внедрение ЕСУ ТЗ в артиллери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21. 2. 26., <https://topwar.ru/180323-vnedrenie-esu-tz-v-artillerii-suhoputnyh-vojsk.html>(검색일:2023.10.25.).

-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10. 2. 5., <http://kremlin.ru/supplement/461>(검색일:2023.9.2.).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Концеп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997.12.17., <http://kremlin.ru/acts/bank/11782>(검색일:2023.9.2.).
- “О Концеп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0.1.10., <http://kremlin.ru/acts/bank/14927>(검색일:2023.9.2.).
-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звестия』, 1993년 11월 18일, [https://yeltsin.ru/uploads/upload/2019/12/21/22124076\\_18.11.1993.pdf](https://yeltsin.ru/uploads/upload/2019/12/21/22124076_18.11.1993.pdf) (검색일: 2024.2.19.).
-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7>(검색일:2023.12.11.).
-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 связ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2010. 5. 21.,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deliberations/7813/print> (검색일:2023.10.25.).
- “Создание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требует адекватного снаб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новым вооружением.”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2010년 9월 22일, <https://topwar.ru/1506-sozdanie-obedinennykh-strategicheskikh-komandovaniy-trebueta-adekvatnogo-obespecheniya-rossijskoj-armii-novym-vooruzheniem.html>(검색일:2023.11.2.).
- “Шойгу заявил, что в армии Росси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168 батальонно-т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 *Тасс*, 2021년 8월 10일, [https://tass.ru/armiya-i-opk/12099255?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https://tass.ru/armiya-i-opk/12099255?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검색일:2023.11.15.).

## Abstract

### Russian Military Reforms 2008 in Light of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ng Wook Kim(Assistant professor, K.A.F.A)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ussia has perceived its strategic stability to be undermined by NATO's continued eastward expansion and the U.S. policy of deploying MDs in Europe. In addition, the collapse of the bipolar system, the proliferation of localized wars around the world, and the frequency of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civil wars and international terrorism have increased the need for Russia to be prepared with military method for crises in the region. As the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have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generation of warfare has emerged, and Russia needed to prepare for future warfare. Along with the 2008 military reforms, Russia strengthened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developed weapons capable of neutralizing U.S. MD. It also sought to develop combat efficiency and mobility by improving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armed forces, forming a battalion tactical group, and modernizing weapon systems through the State Armament Program. To respond to future warfare, an integrated tactical network command system is being built to achieve information superiority.

Keywords: Strategic Stability, Military Reform, Battalion Tactical Group, Integrated Tactical Network Command System

투고일: 2024년 1월 12일, 심사일: 2024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23일